

'처벌 대신 미술치유' 작품 전시회

전북대 예술대, 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31일까지 전시

청소년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아트테라피 J.A.T'가 제4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예술대 임혁용 교수를 비롯해 예술감사,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오픈식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예술대학과 전주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해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처벌 대신 12주간의 미술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선도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된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미술 치유 프로그램이 매주 3시간씩 진행했다.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 판단을 위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체험으로 이뤄졌다. '마음의 안식처'라는 주제로 색 물감을 넣어 풍선을 던져보는 '감정 터트리기'와 본인의 얼굴을 뜯 '가면 만들기', '가면 인터뷰', '마음의 안식처를 상징하는 '나무집 제작하기' 등 자기치유적 미술활동과 1대 1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시간



청소년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아트테라피 J.A.T'가 제4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23일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예술대 임혁용 교수를 비롯해 예술감사,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오픈식이 열렸다.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서툴지만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안식처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고백이 담긴 작품을 통해 자기성찰과 심적 정화의 시간을 갖고, 전시 작품을 바라보는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한 임혁용 교수(예술대 미술학과)는 "마음의 안식처라는 주제가 뜻하는 것처럼 전시장을 찾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과 삶의 여유를 찾길 바란다"며 "청소년 아트테라피의 여정(旅程)이 더욱

풍요롭게 이어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양오봉 총장은 "아트테라피는 자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상처 난 마음까지 치유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서 진지한 자기성찰과 함께 자존감 회복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번 미술 체험 프로그램 수료를 계기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기자

전통 문화예술 발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

국립민속국악원-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약 체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23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터(사무총장 김지성)와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종 공연, 국제행사, 세미나 등 개최 협력 △전통 문화예술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학술출판물 등 양 기관의 사업 관련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및 상호 홍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기타 양 기관의 교류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협약문을 채택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현재 수준 높은 국악 공연과 교육콘텐츠 및 연구 실적을 통해 전통문화를 재창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13만 건에 이르는 시청각 자료, 학술 및 전문가 정보 등이 축적된 정보공유 플랫폼(ichLinks)을 운영하며 방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김중현 원장은 "국립민속국악원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 콘텐츠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나 세계로 뻗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23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명인·명창' 꿈나무 무대

국립민속국악원, 2월 2~3일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월 2~3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전통 민속악의 전승 보급 등 차세대 예술가 발굴에 중점을 두고 기획한 2024 꿈나무 무대 '차세대 명인·명창'을 개최한다.

차세대 명인·명창은 판소리와 전통 기악 전공자들의 젊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명의 참가자가 기량을 뽐내서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2월 2일에는 양준모(중3, 적벽가), 살현서(고3, 가야금산조), 김지유(초5, 흥보가)가 무대에 오르며, 3일에는 우혜령(고2, 춘향가), 조양준(고2, 춘향가), 손연재(초6, 흥보가), 길다연(중3, 수궁가)의 공연이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공연을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의 대화)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청소년 위한 힙합 페스티벌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은 겨울방학 끝자락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고자 마련한 Teenager HIP-HOP Festival을 오는 2월 24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티나게 'TeeNaGer' 놀자! 공연은 힙합을 컨셉으로 펼쳐지며 Mnet '쇼미더머니'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실력과 랩퍼 '행주'와 감성적인 멜로디와 유니크한 개성을 가진 랩퍼 '자이언티', 그리고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현재 힙합계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비오(BE O)'가 선보이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군산 청소년(2005~2016년 생)이던 누구나 50% 할인혜택을 받아 부담 없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2월 16일까지 예매 시 조기할인 20%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관람이 가능하다.

/군산=김광곤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홍양숙 관리과장은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공연 관람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eenager HIP-HOP Festival 티나게 'TeeNaGer' 놀자!는 R석 8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으로 오는 2월 25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창문화관광재단, 동리시네마 영화 관람료 전액 무료 이벤트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오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동리시네마 운영을 기념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관람료를 전액부담하여 영화상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영영화는 '노랑 죽음의 바다', '외계+인 2부', '시민덕희', '귀위에 김대중', '왕카', '인투더월드' 등 6편이다. 1월 31일부터 현장 선착순 1인 2매씩 발급이 진행된다.

어린이 영화인 '인투더월드'의 경우는 단체관람이 가능하다. 6편의 영화상영시간은 동리시네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장발권시 고창군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을 지참하고, 이벤트관람권을 받아야 관람이 가능하다. 단, 이 이벤트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관람료를 전액부담하기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전화는 063-564-1340, 현장발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쯤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